청소년의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 변화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황재원 (黃載元)**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중학교 1학년 69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의 1차년도(중1)부터 5차년도(고2)까지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LGM)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포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아개념, 게임시간,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기대 요인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큰 영향력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자아개념, 부모자녀활동 순으로 교육포부의 초기와 변화율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에 반해 게임시간은 교육포부 초기와 변화율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학교규율은 초기 교육포부에는 부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교육포부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정 시점에서의 영향만을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교육포부의 변화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교육포부, 자아개념,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 게임시간, 잠재성장모형

* 본 논문은 2013년도 군산대학교 신입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군산대학교 교직과 조교수

I. 서론

김계현 등(2010)이 제시한 연도별 청소년들의 주요 고민들을 살펴보면 연도에 상관없이 항상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진로문제와 성적문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적문제는 상급학교로 진학이나 취업 등의 진로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청소년기의 진로문제는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상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Erikson(1963)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이러한 과업을 적절히 완수하지 못하면 역할혼미에 빠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잘하고 못하는지 등을 시험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며 자신이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할지를 고민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Zunker(1999)는 중학교시기에 청소년들은 진로결정기술을 기르고 자신의 장점과 능력을 기르며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탐색해야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교현실은 학업성취중심의 교육풍조에 의해서 진로지도 및 상담의 중요성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학교 성적만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김경주, 2011).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단순히 성적에 의해서만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진로포부라고 알려져 있다.

진로포부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Gottfredson(1981)는 직업포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진로포부의 개념을 직업영역에 한정시킨 반면 O'Brien 등(1996)은 진로포부 개념을 직업포부와 교육포부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상위개념으로 보았다. 강경찬(1996) 또한 진로포부를 '진로에 대하여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진로포부를 교육포부로 한정시켜 보고자하는데,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고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과 능력이 요구되는데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욕구가 높고 사회특성상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직업선택을 대학입시 이후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교육포부와 직업포부는 상관관계가 높기(김경주, 2011) 때문이다.

교육포부는 한 개인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자 열망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개인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한다(전하람, 김경근, 2006). Coombs & Davies(1965)에 따르면 교육포부는 하나의 개인적 성향으로써 개인이 장래에 성공하고자하는 의지, 즉 성취지향성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교육포부는 학생의 향후 교육성취와 장래

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ewell, Haller & Portes, 1969)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포부를 갖도록 진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는 Super(1953)의 진로 발달단계에 따르면 탐색기에 해당되므로 교육포부를 너무 낮게 잡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로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들의 교육포부수준을 파악하고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요구된다.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성별, 자아개념, 학업성취와 같은 개인요인이나 부모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교육비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Wisconsin모형에서 처음으로 사회심리학적 요인이 도입되었다(Sewell, Haller & Portes, 1969). 그 후로는 이를 바탕으로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인이 학생의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Williams, 1975; Picou & Carter, 1976; Reitzes & Mutran, 1980; Sewell & hauser, 1980; Davies and Kandel, 1981; 전하람, 김경근, 2006).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특정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횡단연구로써 피험자들의 교육포부수준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러한 변화에 장기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밝혀주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사용하여 중학교1학년부터 고등학교2학년까지 5년 동안의 교육포부수준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1학년 당시의 여러 변인들이 당해 그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면 그 변인은 당해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비해서 훨씬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는 교육포부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요인들을 밝혀줌으로써 교육 및 진로지도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배경

포부(aspiratio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뜻한다(국립국어연구원, 2000). 포부는 개인에게 미래에 대한 목표를 분명하게 해주어 방향성 있고 계획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적절한 포부를 갖는 것은 개인의 삶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실제로 포부는 기존의 지위를 버리고 더 높은 지위를 획득하려는 성취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Saha, 1997). 그러나 한 개인의 포부는 그 기대가 지나치게 되면,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Grubb, 1984).

이처럼 포부는 한 개인의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서 어떤 대상에 대한 미래의 행동준비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학업이면 학업포부, 직업이면 직업포부, 교육이면 교육포부가 될 수 있다. 그중에서 교육포부는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수준에 얼마나 몰입하는가를 예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며(Munro, 1981) 향후 직업획득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김희순, 2006). 김수연(1997)은 높은 교육포부수준을 가진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동기화되고 같은 조건에서 결과적으로 더 높은 교육성취를 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여러 연구들은(김경숙, 1983; 김영숙, 1984) 교육포부가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하람과 김정근(2006)은 교육포부의 성격을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교육포부를 한 개인이 사회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한 개인의 교육포부는 그가 가정 및 학교와 같은 사회화의 장 속에서 형성하게 된 능력, 동기, 기대 등의 개인적 특성이나 의미 있는 타인과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Sewell, Haller, & Portes(1969)의 wisconsin 모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육포부가 가정배경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불평등을 설명하는 주요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교육사회학적 관점으로서(김신일, 2012; Karabel & Halsey, 1983; Teachman & Paasch, 1998), 개인은 사회구조에 의해 구속되어 외적으로 강제된 준거에 의해 포부를 제한받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위획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Kerckhoff, 1976).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육포부와 관련된 주요요인들을 크게 개인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등의 3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개인요인에는 주로 성별이나 자아개념, 학업성취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 성별에 따라 교육포부수준이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는가하면(Kao & Tienda, 1998) 여러 변인들을 통제했을 때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었다(Ritzes & Mutran, 1980). 안우환(2009)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남학생이 더 높은 교육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전하람과 김정근(2006)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교육포부는 서로 상당히 다른 요인들의 지배를 받는데 특히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가 성별에 따라 달랐다고 보고하였다. 즉 대졸 희망자와 대비하여 전문대졸 이하의 교육포부를 가진 남학생에게는 친구의 낮은 학업성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일한 교육포부의 여학생에게는 어머니의 미흡한 지원이 교육포부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작용을 하였으며, 대학원졸 이상의 고학력을 추구하는 데는 가정의 경제력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 훨씬 더 중요한 제약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학업성취와 관련해서 Coombs & Davies(1965)는 학업성취가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그 후 다수의 연구들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Alexander & Eckland, 1975; Marini & Greenberger, 1978; Dougherty, 1987; McClelland, 1990;

Wilson & Boldizar, 1990; Bogenscheider & Steinberg, 1994; Kalmijn, 1994; Whitker & Pascarella, 1994). 김경근과 변수용(2006)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더 많이 선택하였으며 여기에는 높은 교육포부수준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희자(2008)는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학업성적이 교육포부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황정훈(2014)은 교육포부 및 직업포부가 학업성취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직업포부가 교육포부를 매개로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아개념과 관련해서는 주로 자아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에 초점 맞추어 연구되었는데 Ritzes & Mutran(1980)은 자아정체감이 교육포부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양난미(2008), 이현주(2005),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2011) 등이 자기효능감이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교육포부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진로포부와 교육포부가 상관이 높은 만큼 영향력을 짐작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 소득수준, 교육비 등이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모형이 Blau & Otis(1969)의 지위획득 모형인데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잘 보여주었다. 국내연구에서도 이영덕 등(1991)의 종단연구를 살펴보면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는 의사가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김경근과 변수용(200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계소득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권승(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소득수준이, 안우환(2009)의 연구에서는 부모학력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희자(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이 교육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빈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사회심리적 요인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또한 주동범(2006)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자녀의 교육포부수준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이 매개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전하람과 김경근(2006)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교육포부를 설명하는 변량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가정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학문적 잠재력의 원천으로서 자녀가 학교에서 성공을 거둘 가능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둘째 가정은 아이들이 바깥세계의 사건 및 상황을 평가하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축소판 사회로 볼 수 있으며, 셋째 가정은 아이들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은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통해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사회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부모, 친구, 교사와 같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부여하

는 의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타자의 반응과의 타협의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이윤희, 1993)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의미 있는 존재와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가치나 기대에 영향을 받아 자신의 진로나 교육에 대한 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부모관련 요인들을 살펴보면 Paulson(1994)는 자녀의 정서적 독립을 격려하면서 성취에 높은 가치를 둔 부모들의 자녀는 보다 높은 교육포부수준을 보인다고 하였고 Kao & Tienda(1998)도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 외의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의 기대나 부모-자녀 관계 및 활동이 자녀의 진로나 교육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미, 김영옥, 2002; 주동범, 2006; 김두환, 2008; 안우환, 2009). 변민경(2013)에 따르면 부모요인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크게 부모의 기대와 부모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기대가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자녀 활동이나 참여가 부모의 배경과 자녀의 교육적 성과 사이에서 매개하는 변인이라는 연구가 있는데(심미옥, 2003) 이점은 부모-자녀 활동이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안우환(2009)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하고 함께 놀고 부모-자녀간 관계를 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다면 학생의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부모 못지않게 교사나 친구의 존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교사나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기대나 상호작용이 청소년들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실제로 그 학생에게서 실현된다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를 고려해 볼 때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은 교육에 대해 긍정적이고 교육포부도 원대할 가능성이 크다(Williams, 1975).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때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였다는 연구(Ryan & Patrick, 2001)를 통해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영향력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포부에 대한 교사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밝힌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친구요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친구는 성인과 다르게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진로계획, 동기유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식, 2001; Perterson, Stivers & Peters, 1986). Perterson, Stivers & Peters(1986)는 의미 있는 타인이 진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왔는데 후기 청소년 남학생에게 의미 있는 타인은 아버지(68%), 어머니(66%), 친구(51%), 형제자매(48%), 교사(44%) 순이었고, 여학생에게는 어머니(72%), 친구(57%), 아버지(51%), 교사(44%), 형제자매(33%) 순이었다. 그러나 포부와 관련된 친구의 영향은 다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Haller & Butterworth(1960)는 친구와 포부수준에서는 전반적으로 정적인 상관을 보이지만 직업포부에 비해서 교육포부에 대한 친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Spencer(1976)의 연구에서도 부모나 교사에 비해서 친구의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육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게임시간과 학교규율 요인에 관심을 가졌다. 요즘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지나친 게임은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의철 등, 2013; 최진오, 2014). 한편 고영삼은(2011)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 내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불안과 불행감이 높고, 내향적이며 포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게임을 많이 하는 청소년들은 학업성취가 낮고 그에 따른 교육포부 수준도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규율 요인 또한 교육포부수준에 영향 있는 변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관련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김정원(2004)은 학교규율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훈련활동과 훈련에 적용되는 명시적, 암시적 규칙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역사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소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의 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합법적 권위로 창출해 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식민지교육과 독재를 위해서 체제순응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김정원, 2004). 그러나 규칙이나 규율 자체가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뒤르켐은 규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한다고 보았다(강창우, 2012). 또한 최근의 부모교육에 연구에서도 자애로운 돌봄과 함께 엄격하고 원칙 있는 양육태도가 건강한 아동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8). 따라서 학교규율이 면학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질서가 바로 선 학교문화가 장기적으로 학생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중단연구2005(KELS:2005)’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2929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703914 전원을 모집단으로 해서 3단계 층화군집추출법(three stage 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6999명을 추출하였고 그 중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 6908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표본학생의 학부모를 학부모표본으로, 표본학생의 1학년 담당교사전원을 교사표본으로 삼았다. 이 조사는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 매년 추적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용으로 공개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중학교 1학년 시점부터 고등학교 2학년 시점까지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618명(52.4%), 여학생이 3290명(47.6%)이었다.

2. 관심변인 및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육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의 자료로부터 교육포부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독립변인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선행연구에서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변인들 즉, 개인변인, 사회경제적변인, 사회심리적변인들에 초점을 맞춰 1차년도 자료로부터 측정하였다. 개인변인으로는 성별, 학업성적, 자아개념, 게임시간, 사회경제적 변인으로는 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교육비, 사회심리적 변인으로는 부모교육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 교사태도, 교사열정, 친구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표 1>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표 1> 주요변인들의 측정 및 신뢰도

범주	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개인 변인	성별	남자:1 여자:2	학생1번	-
	학업성적	종단연구 시작 시점 이전의 성적, 즉 초등학교 6학년 성적을 질문하여 9점 척도로 측정함	학생2번	-
	자아개념	자아개념은 사회, 가족, 신체, 학업 자아개념으로 구성된다. 사회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사회성을 측정하고, 가족 자아개념은 학생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며, 신체 자아개념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고, 학업자아개념은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	학생3번	.917
	게임시간	학생의 하루 평균 게임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눠 질문하고 평균하여 측정함.	학생27번	-
	부모교육 수준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각각 7점척도로 계산하고 평균하여 측정함.	부모10번	-
사회 경제적 변인	가구소득	부모의 월 가구소득을 합산하여 측정함.	부모17번	-
	교육비	한 달에 지출하는 교육비를 측정함.	부모18번	-
사회 심리적 변인	부모교육 기대	학생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교육기대를 측정함.	학생34번	-
	부모자녀 활동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을 아래의 6개 영역에서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측정하여 합산함. ① 정치 또는 사회문제 토론 ② 책, 영화, TV 프로그램에 대해 토론 ③ 클래식음악 감상 ④ 학교생활에 대해 의논 ⑤ 식사를 함께 함 ⑥ 일상적 대화	학생36번	.749
	학교규율	학교에서 학교규칙이 공평하고 공정하며 엄격하게 시행되는지, 모든 학생들이 규칙을 알고 있고 어겼을 경우 어떤 벌을 받는지 아는 정도를 측정함.	학생10번	.754
	교사태도	교사의 이해도, 공정성, 친절도, 칭찬, 도움 등을 측정함.	학생7_5~10번	.862
	교사열정	교사의 수업에서의 열정, 지식, 솔선수범을 측정한다.	학생11번	.888
종속 변인	친구관계	친구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도와주는 등 친구관계가 얼마나 원만한지를 측정함.	학생7_11~14번	.831
	교육포부	학생에게 앞으로 어느 학교 수준까지 진학할지를 질문하여 측정함.	학생32번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종단자료인 교육포부의 변화에 여러 관심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형 중 하나인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 LGM)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반복측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적용해 온 전통적인 통계분석 방법의 제한점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반복측정 자료로부터 측정의 오차가 정제된 잠재변인을 추출한 다음 변화초기의 평균 및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율뿐만 아니라 변화에 있어서 개인 간 변동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관련 변인을 탐색하는 종단적 연구설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문수백, 2013). 모형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종단자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해서 결측치를 포함한 케이스를 제거하는 listwise나 pairwise방법보다는 적절한 값으로 대체하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방법을 사용하였다. FIML방법은 한 변수값이 무선적으로 발생했거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에 listwise 또는 pairwise와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미지수 추정을 한다(문병상, 2012). 통계패키지는 AMOS 21.0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1.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의 변화

연차별로 교육포부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2로 제시하였다. <표 2>를 보면 교육포부의 수준은 중학교 시절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가 고등학교1학년이 되면서 조금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는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표 2> 연차별 교육포부의 평균과 표준편차

년차	1차(중1)	2차(중2)	3차(중3)	4차(고1)	5차(고2)
평균	4.13	4.08	4.15	3.55	3.44
표준편차	.873	.836	.849	1.298	1.235

2. 변화모형 설정

연구의 목적이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포부수준이 여러 관심변인들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는데 있기 때문에 2단계 분석방법에 따라 먼저 과연 학생들의 교육포부가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변화모형(change model)을 설정한 다음 그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 봐야한다. 본 연구의 변화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처럼 종단적 설계에 따라 동일한 변인이 상이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측정된 다섯 개의 관찰변인으로부터 두 개의 잠재변인인 ‘초기교육포부’와 5년간에 걸쳐 ‘변화교육포부’가 측정되며 잠재성장모형에서는 이를 잠재성장요인(latent growth factor)라고 부른다(문수백, 2013). 그리고 다섯 개의 관찰변인은 두 잠재성장요인의 지표변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초기교육포부’ 잠재요인이 5개의 관찰변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비표준화회귀계수는 학년별로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되어야 하므로 모두 1로 고정하였다. 한편 표2에서 보다시피 변화의 그래프는 선형형태가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변화가 큰 비선형형태이므로 ‘변화교육포부’ 잠재요인의 비표준화회귀계수를 이러한 곡선 특성에 맞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차년도 교육포부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편차를 계산하여 0, -0.05, 0.02, -0.58, -0.69로 각각의 비표준화회귀계수를 설정하였다.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그림 1] 변화모형의 경로도

<표 3> 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CFI	RMSEA	ECVI
변화모형	90.117	10	.000	.976	.034	.016

<표 3>을 보면 χ^2 값이 90.117로서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χ^2 검증은 표본수에 민감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즉 표본이 클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가능성 커져 좋은 모형도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할 수 있는 RMSEA와 같은 적합도지수가 개발되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12). 본 연구는 표본수가 매우 크므로 RMSEA 값을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값이 .034로서 매우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 수에는 덜 민감한 CFI 값도 .976으로 양호하였다. 평균을 다루는 잠재성장모형에서는 ECVI와 RMSEA같은 절대적합도 지수를 보고해야하는데(문수백, 2013) ECVI 값이 .016으로 매우 양호하였다. 따라서 변화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예측모형의 설정 및 검증

변화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의 변화모형에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는 관심변인들을 추가하여 예측모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예측모형에는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변인들, 즉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변인들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먼저 변인을 하나씩 투입하여 초기교육포부와 변화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성별과 교사태도를 제외한 <표 1>에서 제시한 변인들은 대부분 초기교육포부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변화교육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변인들이(부모교육수준, 가구소득, 교사열정) 많았다. 한편 학업성적과 교육비, 친구관계는 단독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는 초기값과 변화율 모두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다른 변인들과 함께 투입했을 때는 다중공선성문제가 발생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변인들을 동시에 투입해도 다중공선성의 문제없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아서 초기값과 변화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변인들을 중심으로 예측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예측모형에 추가된 변인들은 자아개념, 게임시간,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이었다. 예측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고 예측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2] 예측모형의 경로도

<표 4> 예측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p	CFI	RMSEA	ECVI
예측모형	501.089	25	.000	.926	.053	.084

<표 4>를 보면 CFI 값이 .926, RMSEA 값이 .053, ECVI 값이 .084로 예측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측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예측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p
자아개념 → 초기	.005	.151	.001	10.062	.000
자아개념 → 변화	.008	.144	.001	5.556	.000
게임시간 → 초기	-.012	-.064	.003	-4.017	.000
게임시간 → 변화	-.023	-.081	.008	-2.984	.003
부모기대 → 초기	.165	.551	.005	36.550	.000
부모기대 → 변화	.103	.224	.012	8.212	.000
부모자녀활동 → 초기	.015	.120	.002	8.072	.000
부모자녀활동 → 변화	.014	.073	.005	2.843	.004
학교규율 → 초기	-.009	-.058	.002	-4.057	.000
학교규율 → 변화	.012	.049	.006	2.018	.044

<표 5>를 살펴보면 부모기대는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각각 .551, .224로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다른 변인에 비해서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 즉, 부모의 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자녀들은 초기에 교육포부수준이 높았고 교육포부의 변화율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아개념과 부모자녀활동은 부모기대 다음으로 높게 교육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시간은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각각 -.064, -.081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게임을 많이 할수록 초기에 교육포부수준이 낮았고 교육포부의 변화율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교규율은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표준화계수가 각각 -.058, .049로 나타났는데, 학교규율이 잘 정립되어 있을수록 초기에는 교육포부수준이 낮았으나, 교육포부의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년증가에 따른 교육포부의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하는데 있었다. 교육포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자아개념, 게임시간, 부모기대, 부모자녀활동, 학교규율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선행연구에서 교육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주로 자아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에(이현주, 2005; 양난미, 2008;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 2011, Ritzes & Mutran, 1980) 대해서만 연구가 진행되었지 자아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을 사회, 가족, 신체, 학업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데 그 상대적 영향력이 부모기대 다음으로 컸다. 설문문항으로 의미를 분석해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단체생활을 잘하며, 가족관계가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며 부모와 편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신체나 용모에 만족하고 자신이 있으며,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수업에 적극적일수록 교육포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변화 가능성이 크고 부모의 도움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4가지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게임시간이 교육포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시간과 교육포부의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지만, 지나친 게임의 사용은 중독으로 이어지고 중독은 학업적, 사회적, 가정적, 직업적으로 심각한 부정적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황재원, 2010) 교육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실제로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일수록 초기에 교육포부를 낮게 설정했고 교육포부 변화율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점은 학년 초기에 게임을 많이 하는 학생은 학업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게임에 몰입함으로써

써 교육에 대한 포부를 낮게 설정하게 되고, 낮은 교육포부로 인해 게임을 더 많이 하는 악순환에 빠짐으로써 교육포부수준은 더 낮아지게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나 교사들은 중학교 1학년 초나 그 이전부터 학생들의 게임시간을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기조절능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함을 알 수 있다.

부모기대 요인은 다른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기대는 초기 교육포부설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교육포부 변화율에도 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많은 선행연구들의(Paulson, 1994; Kao & Tienda, 1998; 김영미 & 김영옥, 2002; 변민경, 2013) 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독립에 대해 불안을 느끼며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이옥형, 2006). 따라서 부모의 영향력은 청소년들에게는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며, 부모가 바라는 기대가 자녀에게서 실현된다는 피그말리온효과(pygmalion effect)가 본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점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교육적 기대가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하는 알 수 있는데 부모가 교육에 대한 기대를 높게 가지면 자녀도 교육포부를 높게 설정할 것이고 낮게 가지면 그 반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가 자녀의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교육적 기대를 할 때 자녀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교육포부를 높게 설정하겠지만 심적인 부담감과 압박감, 즉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는 점이다(김종백, 김준엽, 2009). 따라서 부모는 자신의 욕심보다는 자녀의 능력에 맞춰 현실적인 기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자녀활동 요인은 자아개념 다음으로 높게 교육포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모자녀관계가 좋을수록 교육포부수준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들과(주동범, 2006; 김두환, 2008; 안우환, 2009)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주관적으로 단순히 '좋다/나쁘다'로 평가하기보다는 부모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활동의 정도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보다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부모들과 더 많이 정치 또는 사회문제나 책, 영화, TV프로그램에 대해 토론하거나, 더 많이 함께 클래식 음악을 감상하며, 더 많이 학교생활에 대해 의논하거나, 더 많이 식사를 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것이 교육포부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포부수준의 변화는 부모기대에 따른 교육포부수준의 변화와는 다른 점이 있다. 후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서 변화된 교육포부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전자의 경우는 부모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변화된 교육포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영향력은 다소 적을지 모르지만 지나친 기대를 통해서 교육포부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자녀들과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면서 그들의 교육포부를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규율이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규율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뒤르켐의 주장이나(강창우, 2012) 부모가 자애로운 돌봄과 더불어서 일관되고 엄격하며 원칙 있는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 건강한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내용과(정옥분, 정순화, 2008)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규율이 엄격하다고 지각할수록, 학년초기에는 교육포부수준이 더 낮았지만 교육포부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학년초기의 더 낮은 교육포부수준은 엄격하고 익숙하지 않은 학교규율에 대한 반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한 학교규율이 몸에 배고 익숙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배양되고 그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교규율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교육포부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교육포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나 학부모는 당장 눈앞의 변화만을 보고 효과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종단연구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교육포부의 변화과정을 추적할 수 있었고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의 교육포부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밝혀졌지만 그 요인들이 갖는 영향력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변인과 사회심리적인 변인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학생 자신이나 부모, 교사의 관심과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었다. 즉 학생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게임시간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는 적절히 높은 교육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자녀와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사는 학년 초기에 학교규율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공개된 종단자료를 사용하다보니 5차년도(고등학교 2학년) 자료까지밖에 분석할 수 없었는데 향후 대학교 진학 후 자료까지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좀 더 포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교육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포부와 관련이 크다고 알려진 직업포부와도 상호작용을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경찬(1996). 한국 중·고교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포부 관련변인 탐색.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강창우(2012). 학생과 교사의 학교규율에 대한 인식과 상호작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고영삼(2011). 청소년 인터넷중독 상담 내담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분석. **인문학논총**, 25, 51-79.
- 국립국어연구원(2000).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권승(2008). 소득, 포부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매개변수 검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4(2), 23-42.
- 김경근, 변수용(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경숙(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경주(2011). 청소년 진로포부 영향요인 구조 분석.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 김계현, 김동일, 김봉환, 김창대, 김혜숙, 남상인, 천성문(2010). **학교상담과 생활지도**. 서울: 학지사.
- 김두환(2008). 부모와 자녀의 사회적 관계와 대학진학 포부 및 학업성취. **교육사회학연구**, 18(4), 29-53.
- 김수연(1997). 전문대학생의 교육포부와 편입학 계획 결정과정.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신일(2012). **교육사회학**. 경기도 파주: 교육과학사.
- 김영미, 김영옥(2002). 무용전공학생의 교육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요인 탐색. **한국여성체육학회지**, 16(2), 51-62.
- 김영숙(1984). 고등학생의 교육 및 직업포부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김의철, 박영신, 탁수연, 김정희, 오미선(2013). 특집호: 디지털시대의 사회문제; 청소년 사이버 자기개념, 자기효능감, 친구관계, 주관적안녕감과 학업성취도: 인터넷 중독인식집단과 비중독집단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9(2), 285-318
- 김정원(2004).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규율(“생활지도”)의 의미. **교육사회학연구**, 14(2), 53-79.
- 김종백, 김준엽(2009). 학업성취 관련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12).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희순(2006). 사회계층에 따른 어머니의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대학진학포부와 교육적 지원. 석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김희자(2008). 청소년 빈곤과 진로성숙도, 교육포부. **보건과 복지**, 10, 87-106.

문병상(2012). 내재적 읽기동기, 자기조절학습전략, 국어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3(4), 143-162.

문수백(2013).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변민정(2013). 의미 있는 타인이 중학생의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안우환(2009).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자본과 교육포부 수준과의 관계: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57(1), 1-20.

양난미(2008). 중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진로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상담학연구**, 9(2), 537-550.

이영덕, 김영찬, 김기석, 김신일(1991). **중고등학생의 생활과 진로에 대한 종단적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이옥형(2006). **청년심리학**. 경기: 집문당.

이윤희 역(1993). **현대사회이론의 흐름**. 서울: 민영사.

이현주(2005).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몰두와 진로포부에 대한 사회적관계성, 진로장애인식, 진로 장애대처효능감의 역할. **교육학연구**, 43(1), 187-211.

장경아, 이지연, 한기순(2011).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매개효과연구. **한국교육논단**, 10(1), 1-23.

전하람, 김경근(2006). 고등학생의 교육포부 결정요인 분석: 의미 있는 타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6(4), 185-206.

정옥분, 정순화(2008).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정원식(2001). **인간의 동기**. 서울: 교육과학사.

주동범(2006).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자녀의 교육포부수준과의 관계. **교육사회학연구**, 16(2), 141-161.

최진오(2014).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이 ADHD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2), 19-28

황재원(2010). 청소년의 인터넷사용시간에 대한 자기조절과정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황정훈(2014). 후기 청소년의 문화자본, 직업포부,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3), 375-394.

Alexander, K. L. & Eckland, B. K. (1975). Contextual effects in the high schoo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3), 402-416.

- Blau, P. M. Otis, D.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John Wiley.
- Bogensneider, K. & Steinberg, L. (1994).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 developmental analysis. *Sociology of Education*, 67(1), 60-77.
- Coombs, R. H. & Davies, V. (1965). Social class, scholastic aspir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8(2), 96-100.
- Davies, M & Kandel, D. B. (1981). Parental and peer influences on adolescents' educational plans: some further evidence.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7(2), 363-387.
- Dougherty, K. J. (1987). The effects of community college: aid or hindrance to socioeconomic attainment? *Sociology of Education*, 60(2), 86-103.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80.
- Grubb, W. N. (1984). The bandwagon once more: vocational preparation for high-tech occupations. *Harvard Educational Review*, 54(4): 429-451.
- Haller, A. O. & Butterworth, C. E. (1960). Peer influences on level of occupational and educational aspiration. *Social Forces*, 38(4), 289-295.
- Kalmijn, M. (1994). Mo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children's schooling.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2), 257-275.
- Kao, G, & Tienda, M. (1998). Educational aspirations of minority youth.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106(3), 349-384.
- Karabel, J., & Halsey, A. H. (1983). *교육과 사회구조[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강순원 역). 서울: 한울.
- Kerckhoff, A. C. (1976). The status attainment process: socialization or allocation. *Social forces*, 54, 368-381.
- Marini, M. M. & Greenberger, E. (1978). Sex differences in educ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15(1), 67-79.
- McClelland, K. (1990). Cumulative disadvantage among the highly ambitious. *Sociology of Education*, 63(2), 102-121.
- Munro. B. H. (1981). Dropouts from higher education: path analysis of a national sample. *American Educational Journal*. 18(2), 133-141.
- O'Brien, K. M. Gray, M. P., Tourajdi, P. P., & Eigenbrode, S. 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an's career choice: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berg & K. M. O'Brien(Chairs), Promoting woman's career development into the next millenium

- p>and beyond. Symposium conduc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Canada.
- Paulson, E. E. (1994). Relations of parenting style and parental involvement with ninth-grade students' achievement.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50-267.
- Peterson, G. W., Stivers, M. E., & Peters, D. F. (1986). Family versus nonfamily significant others for the career decisions of low-income youth. *Family Relations*, 35(3), 412-424.
- Picou, J. S. & Carter, T. M. (1976). Significant-other influence and aspirations. *Sociology of Education*, 49(1), 12-22.
- Ritzes, D. C. & Mutran, E. (1980). Significant others and self conceptions: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academic performance. *Sociology of Education*, 53(1), 21-32.
- Ryan, A. M. & Patrick, H. (2001). The classroom social environment and changes in adolescents' motivation and engagement during middle school.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8, 437-460.
- Saha, L. J. (1997).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ology of education*. Oxford UK: Elsevier Science.
- Sewell, W. H., Haller, A. O. & Portes, A.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1), 82-92.
- Sewell, W. H. & Hauser, R. M. (1980).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aspiration and achievements.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and Socialization*, 1, 59-99.
- Spencer, W. A. (1976). Interpersonal influences on educational aspirations: A cross-cultural analysis, *Sociology of Education*, 49(1), 41-46.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8, 185-190.
- Teachman, J. D. and Paasch, K. (1998). The family and educ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3), 704-714.
- Whitaker, D. G. & Pascarella, E. T. (1994). Two-year college attendance and socioeconomic attainment: some additional evidenc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5(2), 194-210.
- Williams, T. (1975). Educational ambition: Teachers and students. *Sociology of Education*, 48(4), 432-456.
- Wilson, K. L. & Boldizar, J. P. (1990). Gender segregation in higher education: effect of aspirations, mathematics achievement, and income. *Sociology of Education*, 63(1), 62-74.

Zunker (1999).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논문접수 2014년 11월 4일 / 1차 심사 2014년 12월 12일 / 2차 심사 2015년 1월 26일 / 게재승인 2015년 3월 6일

* 황재원: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삼성전자에서 근무하였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교육상담전공)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상담교수를 거쳐 현재는 군산대학교 교직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 E-mail: hjw504@kunsan.ac.kr

Abstract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During Adolescence*

Hwang, Jae-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during adolescence. The longitudinal data(T1-T5) of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RIS) which was conducted by KEDI, were used for this study and analyzed by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LGM).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fluencing factors on the change of the educational aspiration was self-concept, gaming time, parents' expectation, parent-adolescent activities, and school discipline. Parents' expectation was a strongest predicting factor, secondly strong factor was self-concept, and third factor was parent-adolescent activities. On the contrary, gaming time influenced the educational aspiration negatively. school discipline influenced the educational aspiration negatively in the first but afterward influenced the change of the education aspiration positively. This study has methodological significance in that we have found long-term factors which influence the educational aspiration continuously, by using the latent growth model.

Key words: educational aspiration, self-concept, gaming time, parents' expectation, parent-adolescent activities, school discipline

*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of Kunsan National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